

8 인터뷰-이주현(건축학 2017)



2022학년도 우수성과 성취 학생으로 선정된 이주현(건축학 2017)이 좋은 건축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사진=김동희 기자)

“좋은 건축, 더 나은 사회를 만들 수 있는 것”

박상희 기자 smtg7475@khu.ac.kr

지난해 12월, 국제캠퍼스 학무부장 주관으로 2022학년도 우수성과 성취 학생 총 23명이 선정됐습니다. 이들은 2022년 3월부터 12월까지 학술지 논문 게재, 공모전 수상, 창업 등으로 전공과 관련해 우수한 성과를 보였습니다. 우리신문은 우수성과 성취 학생들이 그간 쌓아 올린 이야기를 방학 중 온라인을 통해 전해 보려 합니다. 이에 지난 한 해 ‘한국건축문화대상 학생공모전 부문 대상’의 성과를 거둔 이주현(건축학 2017)씨를 만나봤습니다.

좋은 건축에 대한 의문

졸업을 앞둔 이주현 씨는 건축에 대해 회의감을 느꼈던 과거를 회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씨는 ‘더 나은 사회를 만들 수 있는 건축’이 좋은 건축이라는 생각을 밝혔습니다. 이러한 이 씨의 생각에는 칠레의 인본주의적 철학을 가진 건축가 ‘알레한드로 아라베나’의 영향이 컸습니다. 알레한드로 아라베나는 주거,

공공공간, 인프라, 교통 등 공익이나 사회문제 해결 프로젝트를 수행하며 건축을 해온 사회참여적 건축가로, 그의 대표 작품인 ‘킨타 몬로이’는 칠레 북부지역의 ‘이키케(Iquique)’라는 빈민촌에서 100세대의 노후 주택을 재건하는 프로젝트입니다. 이러한 알레한드로 아라베나의 작품과 철학을 설명하며 건축에 대한 생각을 말하는 이 씨의 눈은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이후 이 씨는 아프리카에 학교를 짓는 공모전에 참여하며 사회를 바꿀 수 있는 활동을 해나갔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치며 이 씨는 한국건축문화대상에서 도심향공모빌리티의 상용화에 따른 도시구조 변화에 대해 제안했으며, 학생설계공모전부문에서 심사위원들의 만장일치로 대상을 수상하는 성과를 이뤄냈습니다. 이에 대해 이 씨는 “환경오염 문제를 해결하면서 사회에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도시구조 변화를 고민했고 심사위원분들도 이를 좋게 평가해 주신 것 같다”는 소감을 전했

습니다. 이어 “졸업 전시를 할 때 계셨던 담당 교수님께서 좋은 사례도 많이 알려주시고 제 아이디어를 더 깊게 생각해 볼 수 있는 방향으로 이끌어 주셔서 좋은 결과가 있었던 것 같다”며 감사의 말을 덧붙였습니다.

다양한 대외경험이 큰 도움이 돼

이러한 성과에 앞서 이주현 씨는 바쁜 학부 공부에도 불구하고 5번의 활발한 공모전 참가를 했습니다. “사실 저희 과가 매일 밤을 새 정도로 과제가 많아 공모전이나 다른 대외활동을 많이 하지는 않는다”고 운을 뗀 이 씨는 “그래도 공모전을 준비하면서 디자인 툴 측면에서 많이 배우고 성장하는 등 얻는 게 많아 후배들도 이런 경험을 많이 해봤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전했습니다. 이에 덧붙여 취업 측면에서도 “면접관분들이 공모전에서 어떤 종류의 공모전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질문을 많이 하신다”며 “건축에서는 보여줄 게 포트폴리오랑 공모

전밖에 없어서 공모전 경험이 확실히 도움이 많이 된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이 씨는 특히 함께 공모전을 준비하는 친구들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저는 한 번 생각에 빠지면 잘 못 벗어나고 어려운 일도 계속 하려고 한다”며 “그걸 끊어주고 생각을 환기하게 하는 친구가 있었기 때문에 공모전을 수월하게 준비해나갈 수 있었다”며 당시를 떠올렸습니다. 이 씨는 저학년 때는 공모전을 참여하는 데 의의를 뒀기 때문에 수상경력이 없었지만 3학년 때부터 참가한 공모전에서는 장려상부터 대상까지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공공에게 좋은 건축을 하는 것이 목표

이러한 과정을 거쳐온 이주현 씨는 사회 전체의 발전에 기여하는 건축을 하고 싶다는 목표가 있습니다. 이 씨는 작년 10월 건원 종합건축사사무소의 현상을 하는 본부에 배치받아 취업에 성공했습니다. 현상

이란 민간 공모와 같이 기업의 숙소나 문화시설을 설계하기도 하고 LH와 같은 공기업에서 하는 지명 현상에 참여하는 것을 뜻합니다. 공공 건축과 수익성 건축을 모두 하게 된 이 씨는 보통 디자인을 하는 사람들은 소규모 사무소나 건축가 아래에서 배우는 곳으로 많이 간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사실 저는 대형 건축사 사무실에 들어가서 디자인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싶은 계획이 있지는 않았고 제가 취업한 곳에서 공공으로 좋은 건축을 하고, 사회 전체적인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쪽으로 성장하고 싶은 생각이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이 씨는 계속해서 빠르게 발전하는 기술에 발맞춰 따라가지 못하는 분야가 건축이라는 생각을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는 진공 튜브에서 차량을 이동시키는 형태의 이동수단인 하이퍼루프와 같은 교통 신기술이나 환경 측면에서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는 루버시스템에도 관심을 가지고 공부중이다”라고 밝혔습니다. 단순히 예쁜 건물을 넘어 인본주의적 가치를 추구하여 사회를 위한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하는 건축을 하고 싶다는 이주현 씨의 행보는 졸업 이후에도 이어질 것 같습니다.